

김혜순

6개월 전

저도 소세포폐암 3기 항암 치료 중 병원 에 입원 하고 있으면 옆 환자들이 소생불가능환자들 넘만아요. 환자도 고생 식구들 도고생 사회적으로 많이 앓좋은것 같아요.

이법은 꼭 고쳐야할 것 같아요.

전 연명치료 앓하기로 다 만들었습니다. 시신장기 기증 도~\*(\*

윤승용

1년 전

보호자 환자 모두가 지옥입니다

몇 년째 누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간병인이 24시간 있어야 하고..밤새 알 수 없는 소리만 내시는 환자분을 보면서 문득 나자신에 미래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존엄사를 찬성합니다. 아름답게 죽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 습니다

시한부 말기암의 고통을 본 가족들. 저 또한 안락사 존엄사가 소원 입니다 고통은 오로지 환자의 몫입니다

김은주

1년 전(수정됨)

건강보험공단에 주민등록증 지참하고 혼자가서 DNR (심폐소생술거부/사전연명치료의향서) 신청하고 오니 조금은 마음이 자유롭습니다만,

식물인간이 빠져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김옥순

1년 전

견딜 수 없는 고통. 평생 그 고통의 모습을 그리며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 자식. 이것이 옳은일인가...!! 의료법이 잘못되었네요. 많은 치매노인들이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윤석정

1년 전

제가 연명치료 하는 것을 보는데 말기암 환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 존엄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

국민의료보험공단에 가서서 연명치료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저도 가려구요

요양병원 요양원 들어가면 그들만 배불립니다 ~1~화장실가서 똥싸지 못하고 바지에 싸고 이정도 세월13년 정도 돌아가심 안락사 강력하게 원합니다 존엄사를 거쳐 가는길.

종교계에서 반대 하니 노인자살1위로 가는것 아납니까~?

강말숙

1년 전

아버지께서 흡인성폐렴으로 위독해지셔서 대학병원응급실에서 곧 돌아가신다고 해서 당황해서 기관내삽관을 한다고 잘못대답을 했어요 아버지는 희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종직전의 상태이셨어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고통당하시다가 온몸이 끓어서 말라버리고 소변이 안나오고 손발이 통통 부으시고 14일만에 사망하셨어요 생명연장치료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가족전원이 요구했지만 병원측에서 우리가족에게 지금 제거하면 살인죄라고 겁을 주면서 돌아가실때까지 인공호흡기를 못떼게했습니다 저희집은 매우 가난한 기초수급자입니다 병원비가 850만원이 나와서 집이 망가졌어요 인공호흡기달자고 재촉한 대학병원 응급실 젊은 남자의사가 원망스러워요 가족이 동의하면 떼줄수있다고 알아냈는데도 보호자인 가족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병원측은 끝까지 잔인하게 20분안에 아버지시체를 빨리 들고나가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병원에 항의도 못하고 힘없고 가난한 저는 눈물흘리며 아버지를 가슴에 묻어야합니다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치료를 강요해 병원이 사람 목숨줄 붙잡고 병원비를 최대한 뽐을수있을때까지 뽐아갔어요 가족이 거부하는데도 병원측은 혈압을 유지한다면서 1%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고통을 줬어요. 돌아가실때까지 절대로 떼주지않았어요. 인공호흡기를 단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도 숨만 쉬는 환자를 침대에 묶어놓고 죽고 싶어도 못죽게 강제로 붙잡아두는 연명치료 반대합니다

로이.루피맘

2년 전

전 지갑에 제가 혹시 사고가 나면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적어서 넣고 다녀요.

박소람

2주 전

잘 들었습니다.

사전의향서..저는 법이 통과 되자마자 보험공단에서 작성 했네요.

아직 건강하고 60전 이지만 죽음에 대해 공부해 두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 이구요.

의식이 있을때 내가 알아서 곡기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네요.

아픈건 죽는거 보다 싫거든요.

내가 원해서 세상에 나온것이 아닌만큼 갈때는 내가 알아서 가려구요...^^

힐링

2년 전(수정됨)

남 이야기만 같지 않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

잘못 선택한 대학병원과 그곳에 의료인들 과실 감추고 의무 기록 조작하고 보호자를 진상으로 기록 모함까지 하고 마음 마프고 한탄 스럽습니다; 잊을수도 없고 기억은 생생하고ㅠㅠ

애기냥

1년 전

7년전 저녁. 약을 해갈려서 잘못 먹고 의식이 오락가락 하려하여 응급실을 열린 가서 치료 받

으니 새벽에 좋아지더라구요~

그래서 퇴원하겠다고(출근해야했거든요) 진상진상 생진상을 부렸는데 퇴원 암시해주시더라구요  
(신장상태를 봐야한다며..)

고소 않한다는 서약서 쓰겠다고 했는데도 않된다 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거였군요^^;;

알았음 진상 았부렸을텐데. ㅎㅎㅎ ㅠㅜ

힐링

2년 전(수정됨)

돌아 가실것 같은 환자인지 가족은 막상 판단이 쉽지 않고

임종 앞둔 환자에게 과잉진료 과잉수술은 비도덕적인것 부적당한것 같아요

막상 가족은 뭐라도 해서 더 나아질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좋아진다면 하는 마음 드는데 가족은 냉정하게 과잉진료지 과잉수술인지 더더욱 판단이 어려워요

그 당시에 이상하고 거북했지만 지나고보니 과잉진료 과잉수술 권한다는 생각이 많이들어요

편안히 가시게 해야 되는데 강제로 의사표시도 못하는데 의료인들 권유로 보호자가 응해서 환자 고통스럽게 한것 같은 생각까지 들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울고 싶어요

비상

1년 전

아 너무 무섭네요~ 진짜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나는 올해가 지나면 60인데... 너무 무서워요

t

1년 전

연명하면 사람숫자가 돈이라 오래 숨붙어 있게 함. 18년 더 살더라구요.

소나무

1년 전

어차피 소생할 수 없는 몸 왜 고통스러운 죽음 을 해야합니까?

편하게 죽을수 있는 것도 인간의 권리 아닐까요

복부인

4개월 전(수정됨)

올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싸인했습니다 자식한테 살릴려고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회생가망이 있다면 모를까 요양병원 중환자실보면 진짜 똥오줌싸고 숨만쉬고있는 시체이니

안수상

3년 전(수정됨)

노인환자대부분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어째서 큰대학병원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열람이 가능한지 의아하네요

애초에 요양병원같이 작은의료기관에서도 적용이되면 대학병원까지 한번더 이동해 환자만더고

통발는시간이 단축되었을텐데,

작은의료기관에서도 마땅히 적용받아 환자가 의료시스템을 누릴수있는 권리가있다고생각합니  
다만, 아직은 대형병원에서만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

